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영화 흥행사 새로 쓴다

광주·전남 14만 등 20일 누적 관객 3백만 돌파...박스오피스 1위 탈환 4050 향수에 젖고 2030까지 호응... '퀸' 노래 음원 차트 1~8위 싸늘이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퀸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일주일 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해 화제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보헤미안 랩소디'는 개봉 21일째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관객 327만3647명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79개(광주 43·전남 36개) 스크린에 상영되며 13만9645명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개봉 첫 주 주말 관객은 42만3799명이었으나 둘째 주 63만3978명으로 늘었고 셋째 주말에는 64만5330명을 동원하며 뒷심을 보여줬다.

영화의 흥행몰이는 오는 24일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27주기를 맞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비긴 어게인' (2014년·343만명), '라라랜드' (2016년·360만명) 등을 제치고 음악영화 흥행사를 다시 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화는 1980년대 퀸의 활동을 지켜본 4050세대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퀸은 몰라도 퀸의 노래는 아는' 20~30대의 호응을 얻으면서 입소문을 타고 흥행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퀸의 노래를 섭렵하기에는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이른바 'N차 관객'도 상당하다.

이 같은 흥행에는 달라진 극장 시설도 한 몫했다. 마지 공영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스크린과 양쪽 벽까지 3면을 영상으로 둘러싼 스크린

X(CGV)는 '음악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라는 불문율을 만들었다. CGV광주터미널과광주상무점 등 일부 극장에서는 스크린X 상영을 하고 있다.

영화는 퀸과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노래를 그린 작품으로 퀸의 결성부터 19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까지 15년 간 일어난 일들을 다룬다. 브라이언 싱어와 텍스터 플레처가 메가폰을 잡고 앤서니 매카튼이 각본을 맡았다. 라미 말렉이 고 프레디 머큐리를 완벽하게 연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라이브 에이드' 공연 실황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억회를 바라보고 있고 '세계는 한가쪽'이라는 이름으로 MBC가 내보낸 녹화중계 영상은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영화 흥행에 힘입어 국내 음원시장에서도 퀸 인기가 뜨겁다. 영화에는 '라이브 에이드' 공연 실황 음곡인 '보헤미안 랩소디', '라디오 가가', '해머 투 킷'을 포함해 퀸이 남긴 22곡의 주옥 같은 명곡이 실렸다. 20일 오후 5시 기준 '네이버 뮤직' 해외음악 인기 순위에서 퀸의 4집 타이틀 '보헤미안 랩소디'와 '아이 워즈 본 투 러브 유', '돈 스탱 미 나우',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섬바디 투 러브', '위 윌 락 유', '투 머치 러브 윌 킷 유', '위 아 더 챔피언스', '언더 프레스', '라디오 가가' (라이브 에이드 실황), '킬러 퀸'이 나란히 1~8위와 12~13위, 15위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한 장면. <이심세계스튜디오 제작>

한지 결 따라 푸른빛의 성찬

임남진전 26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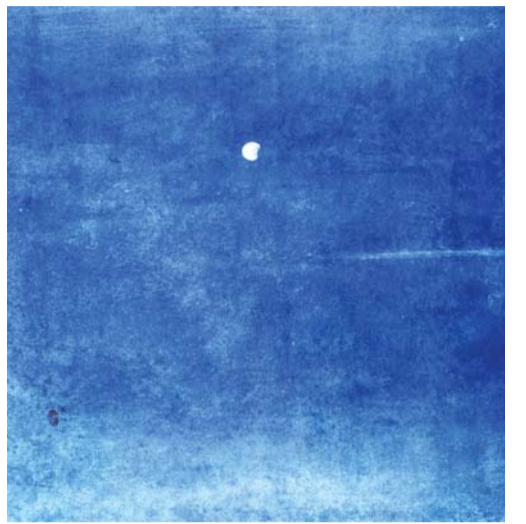
"임작가, 작품이 시(詩)적이야." 전시실로 들어오던 한 미술 관계자가 말했다. 아마도 한국화가 임남진 작가의 작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이가 있다면 '시'라는 표현이 생소할 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인간군상이 등장하는 '풍속화'로 대변되는 그의 그림은 시보다는 강렬한 스토리 라인이 살아있는 산문이나 소설에 가까운 것 같다. 이번 전시를 접하는 이들에게 그녀의 '변화'는 어떻게 다가올까. 작가 역시 "작업하는 내내 괴롭고 행복했고, 앞으로 내 작업의 전환점이 될 이번 전시가 설레고 두렵기도 하다"고 말한다.

임남진 작가 개인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Still life_BLUEU'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임작가는 세상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갈로랑 화에 쫓겼고, 2007년 첫번째 개인전을 통해 강렬한 색감과 다채로운 인물들을 포진시킨 풍속화로 인상을 남겼다. 자신을 각인시킨 강렬한 시그니처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임작가 역시 늘 변화를 꿈꿨지만 좌절하기도하고, 모른 척 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용기를 내 작업실에 머문 임작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그림'을 찾아 하늘과 달과 별, 노을, 바람, 구름 등 '내 작업의 대상으로 머물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

전시 제목처럼 40여점에 이르는 신작은 모두 푸른빛의 성찬이다. 한지 결에 따라, 물감의 농도에 따라, 작가의 붓터치와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푸른빛'이 화면을 채우고 있다. 주 소재는 하늘과 달, 전봇대. 화면을 가로지르는 전깃줄과 거기 앉은 작은 새인 작가의 감정이 실렸다. 세상사 지친 이들이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푸른 하늘과 건물 사이에 걸린 달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구름에 가린 달, 구름에서 나온 달, 하늘 높이



'Still life_BLUEU'

솜은 환한 보름달 등 푸른색 바탕 위에 등장하는 달은 위치와 모양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푸른 화면 속에 바람과 구름의 미묘한 '결'까지 표현하려 한 작가의 정성은 몇몇 작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도 없이 화폭에 색을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 보곤 했지요. 며칠이 지난 후 또 다시 들여다 보구요. 화면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시간이었죠. 그러면 조금씩 달의 위치도, 모양도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전시작들은 도록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결이 모두 다른 한지의 매력, 물감의 스며드는 정도에 따른 변화, 미세한 붓터치에서 오는 차이 등은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다.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임작가는 광주미술상, 하정음미술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국민족미술인연합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607-23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필하모닉스'의 색다른 '보헤미안 랩소디' 광주 무대

캐롤·클래식·재즈 등 담긴 앨범 내달 17일 문예회관서 소개

영화의 제목이자 퀸의 대표곡인 '보헤미안 랩소디'는 당대 최악의 평가를 들었지만 프레디 머큐리가 죽은 뒤 수없이 재구성됐다.

1975년 4집 '나이트 엠티 오페라'에 수록된 '보헤미안 랩소디'는 발라드로 시작해 오페라와 하드록을 넘나드는 광시곡을 표방하고 있다. 퀸은 영국 웨일스의 한적한 농장 '룩필드 팜'에서 무려 6분 동안 이어지는 이 실험적인 곡을 만들었다. 이 곡은 발매된 이후 9주 연속 영국 싱글차트 1위에 올랐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는 '보헤미안 랩소디'에 그들만의 색깔을 입혀 새롭게 연주했다. 필하모닉스는 최근 '보헤미안 랩소디'를 타이틀로 내건 신보 '비엔나 베를린 뮤직클럽'을 발매해 국내 팬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최정상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지 그라모폰'과 함께 작업하면서 클래식 애호가 사이에서 이들 음반은 깊은 신뢰를 받았다.



오는 12월17일 광주 공연을 갖는 '필하모닉스'는 신보 타이틀곡 '보헤미안 랩소디' 등을 연주한다.

6분37초 동안 연주되는 '보헤미안 랩소디'는 1분 정도 피아노 독주로 시작한 뒤 현악4중주에 클라리넷, 더블베이스 그리고 피아노가 더해진 독특한 구성으로 원곡의 재기 발랄함을 살리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포함한 신보에 담긴 음악들

은 오는 12월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필하모닉스'의 광주 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클래식과 팝송, 재즈 등 다채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스티브 '잉글리시 맨 인 뉴욕'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런웨이를 걷는 삭막해진 우리들

박기태전 30일까지 큐브미술관



'걷는 여자들'

조각가 박기태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린다.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각예술 기획전시 '광산아트플러스'의 열번째 시리즈다.

박작가는 '걷는 여자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런웨이 모델'로부터 영감을 받은 조각과 회화 작품 25점을 전시한다. '모델'의 이미지는 외형적인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작가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삭막해진 현대인들의 감정과 허식을 느꼈고 그 감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소재 역시 나무, 돌 등 전통 재료 대신 스티로폼을 사용했다. 스티로폼의 특성이 현대인들이 가진 '거품'과도 같은 허위의식과 유사하다고 여겨서다.

박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광주예술고등학교 미술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960-368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